

들꽃편지

636

2022.1.5. 소한호

<http://cyw.pe.kr> 햇볕같은이야기

주님이 회동하셨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에는 빈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다. 하나님 이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空虛)’을 느낀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돈, 명예, 학벌같은 것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술, 도박, 마약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 의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앉는 보좌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빈 의자를 채우려는 시도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횡한 보좌에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지어서 앉히려 하고, 고가의 예배당 장식, 시설로 채우려 하고, 현란한 보컬 친양대의 퍼포먼스로 채우려 하고, 성경 100독을 하였다든지,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 하였다든지 하는 자기 만족, 자기 공로로 채우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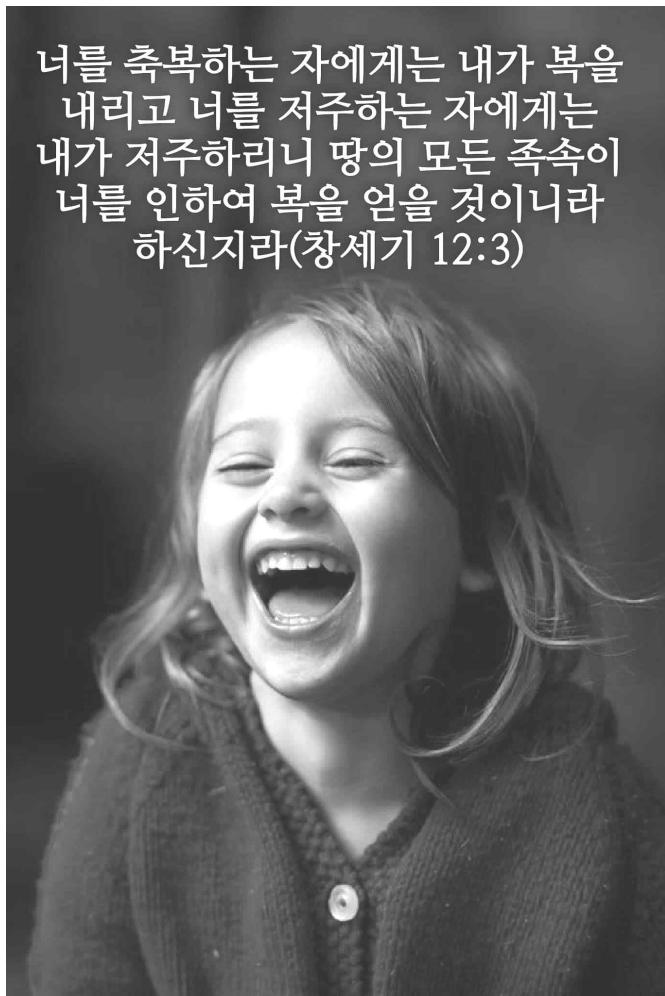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 보좌에 회동(回動)하시어서 나를 만나주시는 ‘임재’(臨齋)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는 것은 아닙니까?”(현대어성경 고후 13:5)

오! 주님 제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 해도 주님이 제 마음과 삶에 회동하셔서 임재하시니 제 인생은 친란하게 빛나는 인생이옵나이다!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사는 최용우 올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창세기 12:3)



페이스북에서 가져옴

숲에 들었거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다.
숲에 들었거든
숲의 법을 쫓을 일이다.

우선 말을 끊고, 그리고
생각도 비워라.
그리하여 나무, 바위,
풀꽃들과
침묵으로 교감하라.

남의 집에 가서
집주인과 대화는 그만 두고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예가 아니잖는가?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 27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온 세계 나라들이 어떠한 일이 터질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들려 오는 뉴스는 희망이 없는 우울함 뿐입니다

모든 대화는 걱정뿐입니다

모든 대화는 근심뿐입니다.

모든 대화는 염려뿐입니다

해결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찌죠? 도와주세요 해결하여 주세요. 소멸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내 새끼도 아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히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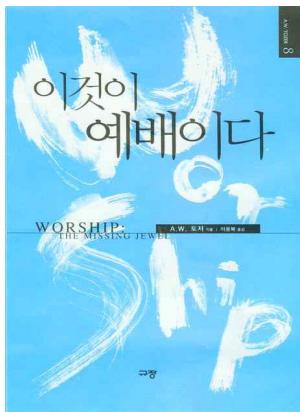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셨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떤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싼님 아찌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이것이 예배이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8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39쪽 12,000원 규장 2008

이 책은 우리가 잊어버린 예배의 본질을 확인하고, 진정성을 점검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며, 예배보다 중요한 삶의 목적이 없음을 강조한다.

1장.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영적(靈的)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창조되었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지,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이유를 알 수 있다. 인간은 그냥 지음 받은 존재가 아니다. 특별한 목적과 임무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예배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에서 창조된 존재이다.

2장. 숨질 때까지 우리의 의무는 예배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안에서 자신을 보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토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러한 인식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어떻게 하면 최고로 잘 살다가 떠나는 인생인지 충분히 자각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우리가 창조되고 또한 재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예배를 위해 최초의 시작이 있었고 또

한 예배를 위해 ‘중생’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3장.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종교 프로그램에 몰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성품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이다. 예배는 도덕적인 존재들의 정상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다.

4장.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거짓된 예배를 경계하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예배를 위해 태어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한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자랐기에 그 자신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하지 않는 죄인이 마음대로 다가갈 수 없다. 가인의 예배는 속죄의 피가 없는 예배이다. 죄를 안고 임의대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다. 십자가의 속죄의 보혈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잘못된 예배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인의 예배와 장엄한 것을 명상하며 즐기는 자연승배는 잘못된 예배이다.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무의미한 싸구려 시(時)에 매료되거나 속죄 없는 가인의 예배,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골라서 믿는 사마리인의 예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극히 작은 속삭임까지 예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에 순종하면 어떤 것이라도 예배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성령님이 없으면 참된 예배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5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참된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마음으로 느끼고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겸손히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준다. 교만한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듯이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부흥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

에게 갑자기 예배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렇다. 그는 어느 날 밤 하나님을 만났다. 그날 밤의 두 시간의 체험을 종이에 적어 곱게 접어 심장 가까운 주머니에 넣었다. 철학자와 지혜로운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파스칼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경험했다. ‘불’이라고 쓴 단어, ‘아멘’이라고 쓴 종이를 접어 셔츠 주머니에 넣어 죽을 때까지 간직한 것은 그의 예배의 행위가 될 것이다.

6장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은 참예배이다

예배에는 질서도, 경건도, 성령님도 계시지 않는다. 기도도 판에 박은 듯 동일하며, 엄숙함도 경이로움도, 거룩한 두려움도 없다.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내용은 ‘하옵소서, 해 주소서’ 뿐이다. ‘하겠습니다’는 없고 모두 다 하나님께 명령만 한다. 그것마저도 응답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기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한다. 상투적인 표현, 재치 있게 들리지만 알팍한 소리. 경건한 말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죽어있는 소리, 막힘없이 번지르르 쓰아내는 명령조의 문장들, 모두가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이 당장 내 앞에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겠는가? 감히 누구를 속이려는 술수인가? 왜 어린 아이처럼 솔직해지고 겸손하지 못한가?

7장 이제 예배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라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있다. 진정한 예배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신다면 당연히 숨을 죽이고 침묵하게 되지 않겠는가? 숭고한 가치의 예배가 이제는 천박한 이기주의로 변질됐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슬프다. 너무 화가 난다.

이젠 미지근한 신앙에서 탈피해야 한다. 반쯤 죽은 것 같은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지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남들 보란 듯이 잘살아 보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왜 크리스챤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슬픔에 치를 떨 것이다. 그리고 교회와 예배의 주인은 분노하실 것이다. 예배는 즐겁고 경외롭고 두렵고 놀라운 경험이다. 진정한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독서일기 ©이재익 목사(일본 니이가타교회)

지금 찬양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즉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님 기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용우 제5시집<찬양하라 내영혼이>中



[댓글]

오승리 / 기쁨 넘치는 지금 이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내 영혼. 춤추는 내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용우 / 저도 춤추는 내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188. 케레스

옛날 어느 시대에 풍요로움이 사라져 대지가 불모 상태가 되었는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케레스의 딸을 오르쿠스가 유괴해 지하 명계에 감금해 버렸다. 케레스의 딸은 '프로세르페레(서서히 밟아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해결되고 나자 다시 풍요로움이 되살아났다고 하여 케레스 여신과 관련된 제의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189. 리베르

리베르는 액상의 씨앗, 즉 제1순위를 차지하는 와인을 대표로 하는 과실의 액즙 뿐만 아니라, 동물의 정액까지 도맡은 신이다. 이 신에 대한 제의가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지를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시작도 하고 싶지 않다.

190. 넵투누스, 살라키아, 베닐리아

이교도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의 물인 '넵투누스'에게는 바다 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의 여신 '살라키아'라는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베닐리아'와 결혼을 한다. 그것은 종교의식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더 많은 악령들을 불러들이려는, 부패한 영혼의 욕정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191. 대지의 여신으로 보는 신격화의 모순

틀림없이 대지는 오직 하나이고, 우리가 눈으로 뚜렷하게 보는 것처럼 그것은 고유한 생명들로 가득 차 있다. 또 대지는 여러 원소들 가운데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왜 이 대지를 이교도들은 여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대지가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일까? 만일 그렇다면, 거기에 쟁기질을 하고 정성들여 경작해 더욱 풍요롭게 가꾸는 인간들이 오히려 더 신성한 존재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교도들은 세계 혼이 대지의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기에 대지는 곧 여신이라고 말한다.

(계속)

초대교회와 성령



1. 초대 교회 성령 공동체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큰 분기점은 네로의 기독교 박해로 예루살렘에 함락된 사건(70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로부터 다시 나라를 세운 1948년까지 거의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시기적으로 예루살렘 함락 이전을 ‘전기 교회’로, 예루살렘 함락 이후 시기를 ‘후기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대 후기교회의 중심은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따라 나사렛파 기독교인들도 흩어졌고 흩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쓴 많은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잘 읽어보면 초대 후기교회시대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전의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포괄적 공동체’를 이루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놓고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산주의’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첫 번째 도약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는 성령을 받고 세계로 흩어진 제자들이 각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근거한 교회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두 번째 도약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신앙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었는지 바울의 ‘서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루살렘 함락 이후 흩어진 곳에 세워진 후기 교회와 흡사합니다. 그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7095)

2. 하나님 인식

이 땅에는 오래 전부터 인본주의적인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의 긴 역사에 비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오히려 짧은 편입니다. 그들 종교들도 나름대로 계명과 장엄한 예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신양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신자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이자 사명입니다.(골3장)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점입니다.

초대 후기 교회의 사도들의 궁극적인 역할은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깊은 의미를 이해시키는 일 이었습니다.(히10:24-25) 새로운 제자들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여 개발하도록 도와주고,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의미가 스며들도록 도왔습니다. (요일1-5장)

교회란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다른 세속적 기관들과는 다르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능력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식’(God-awareness)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세속적인 기관이나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는 인본주의적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7096)

3. 감추기진 하나님의 사랑

초대 교회는 ‘예수의 추종자’들이라고 불렸던 ‘나사렛파’를 주축으로 모였습니다. 서신서에는 초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등등 이런 단어들이 서신서에 가득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의 가치관과 경쟁사회 속에서 짜들다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십자가가 보고 싶고, 하나님

을 만나 위로를 받고 싶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는 이미지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성공 언어가 가득한 실적 위주의 경쟁을 부추기는 세속적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오늘날은 교회나 세상이나 교인들이 힘들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초대 교회 교인들의 관심사와 필요와 공동체 안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상담 편지처럼 서신서는 상황에 맞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인도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교회가 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삶 속에 적용시키며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면 서신서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저수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성장’이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야 교회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표는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감춰진’ 것을 찾지 못하니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7097)

4. 감 생명의 발견

성경은 ‘생명’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육체적이며 만들어진 생명 ‘비오스(bios)’ 그리고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 ‘조에(zoe)’입니다. ‘생명’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육체적 죽음 ‘테류테(teleute)’와 영적인 죽음 ‘사나토스(thanatos)’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에 ‘사망’이 왔는데 그것은 영적인 사망 ‘사나토스’입니다. 육체적 생명은 육체적 죽음의 상태를 맞이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조에(zoe)’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비오스 사나토스(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인 죽음)’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영혼이 깨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 ‘사나토스’ 상태에서 벗어나 ‘조에(zoe)’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성’이라 하기도 하고 ‘깨어남’ ‘중생’ ‘거듭남’이라 하기도 하고 ‘신생’이라 하기도 하고 교파마다 표현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소외와 절망이 가득한 것은 이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육체적 생명인 ‘비오스’를 영원한 생명 ‘조에’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으니 교회의 가르침이나 영성개발, 성경연구, 무슨 프로그램이 전부 ‘이 땅에서 부자 되자’는 ‘비오스’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하고 싶다면 서신서들 가운데 유유히 흐르고 있는 참 생명의 저수지인 ‘조에(zoe)’를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7098)

5. 로마서의 감화력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는 가장 중요하며 정말 많은 시대를 거쳐 사람들의 마음과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로마서를 읽은 후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칼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재발견했습니다. 오리겐, 크리스토, 토마스 아퀴나스, 칼빈 존 웨슬리 등 등 로마서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신학공부를 하면서 처음 읽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의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책이 한 권씩 번역되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사서 읽으며 로이드 존스 같은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로마서1:1-10 본문을 가지고 20주 동안 20번을 설교하고도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지 못할 만큼 로마서가 주는 통찰은 엄청났던 기억이 나는군요.

이토록 감화력 넘치는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그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진 인생의 비밀을 밝혀 줍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조에(zoe)’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조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하는 영원하고 자존(自存)하는 생명인 ‘조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 믿으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7099)

7. 공동체와 교회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 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여자를 만들어 짹지워주신 것도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창궐로 약 2년 동안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강제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만나는 분들의 반응은 “모이지 못하니까 모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 굳이 모이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가두리 양식’(가두어 놓고 물고기를 키우는 방법)의 모임에 대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

리고 ‘교회 밖 세상’과 ‘교회 안 천국(?)’을 구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통찰이 여기저기서 시작되는 조짐을 보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교인들만 뜰뜰 뭉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와 다른 집단들과의 능동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포괄적인 공동체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보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형성된 교회는 창세기 3장의 인간들을 분리시키는 장벽을 허무는 기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아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골3:11)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처럼 ‘개교회’안에 갇혀 있었다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배타하지 않고 품는 공동체였습니다. (7100)

〈댓글〉

담돌 /은혜의 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 교회를 바라보는 저의 생각은 ‘제발 교회 밖으로 나오라’였는데 이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감사드립니다.

8. 교회주의자

제 신앙에 영향을 끼친 분들 중에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물론 책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 분명히 “나는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단어이다. 다만 나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교회관〉에 대해 쓴 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원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가 너무나 ‘기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원래 교회의 얘기가 깔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를 거부해 버림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한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 신앙공동체는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로 이끌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이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 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의도하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를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중심’이 아니라 ‘교회중심’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는데, 교회주의자들은 오로지

교회 걱정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주의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나온 수많은 ‘가나안(안나가)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무교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은 대부분 저절로 교회에 의해서 ‘무교회주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7102)

9. 기준은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분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하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뭐라 말을 할 수는 없네요.”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도 무조건 반대쪽과 적이 되는 개미지옥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는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고 싶어집니다.

동성애자란 같은 성별끼리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느껴서 육체적 관계의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인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육체적 관계를...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 지향은 각 개인의 문제이기에 타인이 어떤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담배가 몸에 안 좋지만 그걸 피든 말든 각 개인의 자유인 것처럼요.

초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아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골3:11) 전혀 다른 성격과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이 모였기에(분명 동성애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수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다행히 ‘서신서’는 그런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바울은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고후 5:14-17)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성적 소수자들도 구원받아야 될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7101)

〈댓글〉

최용우 /동성애에 대해서 물으셨던 분이 “캬~! 기가막히게 빠져 나가는 글을 쓰셨네요.”라고 하시네요 ㅠㅠ. 음...

호일맥 /동성애는 어렸을 때 가정에 폭력인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 그때 입은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 교회는 시대의 옷을 입는다

초대 교회 신앙공동체는 불완전하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애를 썼습니다. 서신서는 각 교회와 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분투했는지를 보여주는 도전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필연적으로 시대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과거의 옷을 입고 있으면 '옛날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교회는 70년대 '새마을 운동과 반공주의'라는 시대의 옷을 누구보다도 빨리 입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에 협조한 덕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정치는 '정교분리'라는 말로 종교가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반공독재시대에서 민주자유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반공독재시대의 꿀에 취해 새로운 옷으로 바꿔입을 타이밍을 놓치고 밀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아직도 70년대 태극기부대의 옷을 뒷 벗은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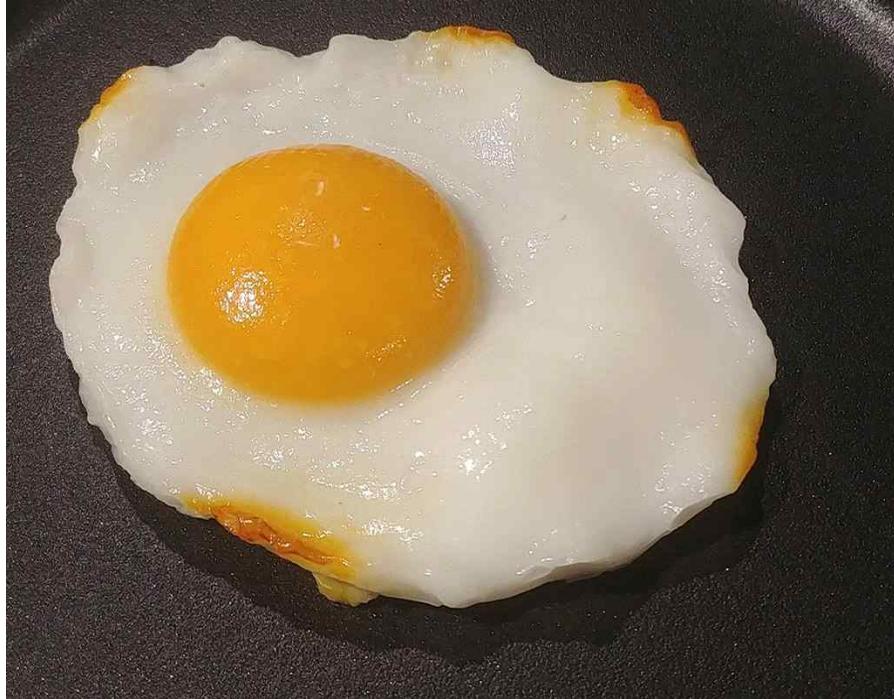
새 시대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이며 교회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부익부 빈익빈'에서 '빈익빈'에 해당하는 90% 대다수의 사람들과, 청년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각 지역에 맞는 옷을 입고 각 지역에 맞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이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과 눈을 맞추고 손을 잡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7103) ©최용우

햇볕같은이야기

<http://cyw.pe.kr>

〈햇볕같은이야기〉는 1995.8.12일부터 매일 아침 원고지 5매 1000자 정도의 짧은 칼럼을 25년 동안 매일 이-메일로 띄우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침편지입니다. 〈햇볕같은이야기〉는 10000번 발행을 목표로 2021.1월 현재 7127회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50쪽 내외의 책 22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최용우'로 검색)



계란 후라이 (사진:최용우)

7기란 후라이

처가에 갔더니 장모님이 뚝딱 점심을 차려 내신다. 그런데 계란에 파를 썰어 넣어 하얗고 노랗고 파란 3색이 선명하여 너무 예쁜 계란 후라이다. 원래 나는 계란을 안 먹는데 나도 모르게 젓가락이 계란을 집어 들고 있었다. 맛있었다.

아내가 “엥? 자기, 계란을 다 먹네요?”라고 했다.

“음...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비린내가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나도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 있겠어.”

아... 나도 모르게 내가 계란을 안 먹는 이유를 알았다. 계란 특유의 그 비릿한 냄새가 싫었던 거야. 계란말이는 먹거든.

아내가 앞으로 계란 후라이를 할 때는 꼭 파를 송송 썰어서 넣어서 내가 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다. 오... 이제 나도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장모님은 참 대단하시다. 나에게 계란을 먹게 하다니.

배춧잎 두장

아내가 밥상에 배춧잎 두 장과 쌈장 한 티스푼을 올려 놓는다.^^ 나는 또 그것을 우걱우걱 먹다 보니 마치 내가 소가 된 기분이다.^^ 어쨌든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배춧잎 한 장이라도 열심히 쟁겨주는 아내가 고마워다.^^



여러 가지 잡곡을 열 가지도 더 섞어서 밥의 색깔이 까만 현미밥도 비주얼은 좀 그렇지만 먹다 보면 그냥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사실 남자의 건강은 날마다 밥을 해주는 여자의 손에 달려 있다. 내 목숨이 아내의 손 끝에 달려 있는 셈이다.

내가 워낙 잡식성이라서 아무거나 다 잘 먹다가, 음식을 가려먹기 시작하면서 식단이 조금 까다로워졌는데 그래도 잘 맞춰서 해주니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어쨌든 애써서 건강한 요리를 해주는 아내에게 어찌 감사하다 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호수공원 한바퀴

최종은 최밝은이가 서울에서 갑자기(?)내려와 두 밤을 자고 올라갔다.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 활기가 넘치고 웃음소리가 난다. 점심으로 황태국을 같이 먹었고, 저녁은 한마음 정육식당에 가서 돼지 한 마리 먹었고, 모던하우스와 코스트코도 함께 갔다.



한바탕 요란시끌하니 내 생활 리듬도 흐트러져 안 먹어야 할 세속음식(?)도 함께 막 먹고, 해야 할 일도 “에이, 다음에 하지”하고 미루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래도 가족들이 완전체로 모두 모이니 그냥 좋다.

평소에는 아침저녁에만 밥 달라고 오던 길고양이 꼬맹이도 오랫만에 누나들에게 이쁨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집안을 들락날락! 오후에 아이들이 서울로 올라가니 갑자기 집안이 다시 ‘수도원’이 되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세종호수공원 한바퀴 돌고 들어왔다.

어려니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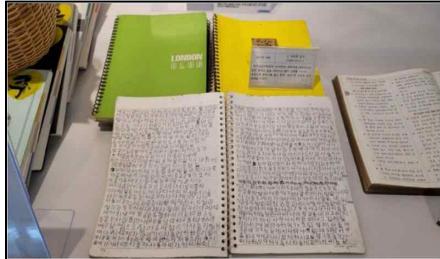
광주CBS 창립 60주년기념 <성경 필사본 전시회>가 광주 CBS 방송국 4층에서 열리고 있다. 어머님이 생전에 쓰신 필사본 성경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주었더니 전시가 되었다.

대형 나무 십자가에 성경을 새긴 작품, 두루마리로 쓴 성경, 병풍 성경등등... 다

양한 모양의 성경 필사본 작품들이 보는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준다.

양순례 집사 성경 필사본은 장애인이면서 글을 모르시는 분이 원손으로 돋보기를 들고 한자한자 글씨를 그림처럼 그렸다는 점에서 다른 필사 성경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작품이다.

우리 가문에 오래도록 믿음의 유산으로 남아서 후손들에게 교훈을 줄 소중한 가보라고 할 수 있겠다.



고 양순례집사 성경 필사본
1937 - 2015(79세 선종)

장애2급(자체장애 소아마비) 무학자로 초등학교도 입학도 못하고 글을 모르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며 원손으로 돋보기를 들고 한자 한자 글씨를 그렸다는 점에서 다른 필사 성경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작품이다.

구연산

“주님, 이제 몸무게 목표 70kg까지 도달 했으니 지금부터는 혈액을 깨끗하게 할 차례입니다.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라고 기도한 날

다음 카페<예수가 좋다오> 운영자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를 타서 소다수를 만들어 음용하면 피가 깨끗해집니다.”(정말 초 스피드 기도 응답^^)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아예 식용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묶어서 판매하는 곳이 여러 곳 있었다. 구연산이 하룻만에 초 스피드로 도착했다. 그런데 오래 전에 누군가가 구연산을 소개해서 먹어보려다 입에 안 맞아 결국 버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게 뭐냐?”고 물었다. 설명을 들더니 “내가 마셔야 될 물인데?” 지금 아내가 열심히 소다수를 만들어 먹고 있는 중이다. 음... 내 기도 응답이 아니었나?



눈치방

겨울이라 떡히 다른 데서 먹이활동을 하는 것 같지 않은 길고양이 꼬맹이가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우리 집 식구들이 외출 했다가 돌아오면 잽싸게 내려와서 현관 문 앞에 대기한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머리부터 디밀고 안으로 들어온다.



아주 필사적이다. 밥 주는 것을 다른 이웃들이 볼까봐 현관 안에서 주었더니, 이 자리에 와야 밥이 있다는 것이 학습된 듯하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밥을 주는데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냥 하루를 굶는 것이다. 밥을 주면 뭐라고 쫑알거리면서 먹는다. 먹으면서 자꾸 눈치를 본다. 언제 밥그릇을 빼앗기고 밖으로 쫓겨날지 불안한 것이다. 어쩌겠냐, 너는 길고양이고 얻어먹는 처지이니 눈치를 봐야지. 너 밥 주려고 나도 이웃들의 눈치를 본다.

고양이나 사람이나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

빈들에서 걸을 때

거의 2년 가까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다 보니 요즘에는 어떤 찬양이 불려지는지 '단절' 되었다가 11월 다니엘기도회를 통해서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찬양을 많이 배웠다.



날이 저물어 갈 즈음 용수천 흙길을 걸으며 운동 겸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내 입에서 기도회때 배운 찬양 한 곡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가사를 찾아보니 지금 내 모습과 딱 맞는 찬양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빈들을 걷는 나를 위해 만들어진 곡이다. 너무너무 공감이 가서 열 번도 넘게 계속 불렸다.

책마누라

언제부터인가 잠을 잘 때 내 옆에 책을 두 권씩 두고 잔다. 자리에 누우면 원손 손바닥이 책 위에 저절로 올려지는데, 책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하면서 잠이 든다.

어떤 책을 읽다가 미처 못 읽고 잠자리 까지 가지고 와서 조금 보다가 잠들었는데, 문득 깨어보니 책이 내 손바닥 밑에서 마치 스캔되어 자동으로 내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뒤로 매일 책장에서 내 책 한 권하고 다른 책 한 권을 무작위로 가지고 와 손을 얹고 책을 어루만지면서 암수하며 자는 습관이 생겼다. 새로운 책마누라가 생긴 셈이다.

그래도 오른손으로는 진짜 마누라를 스캔하며 암수기도를 하면서 자기 때문에 아내의 불만같은 것은 없다. 가끔 책이 내 엉덩이 밑에 깔려서 비명을 지르기도 함.



디테일 차이

건널목에서 여름 한철 더위를 피하게 해주었던 차양막이 겨울이 되자 곱게 접혀 옷을 입고 동면에 들어갔다. 그런데 지난 달에 서울에 갔다가 동작구 길가에 있는 차양막 껌데기에 눈길이 가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시린 겨울 지나 봄이 오는 그날 다시 만나요.〉 오! 멋지다!



오늘 우연히 건널목에서 곱게 접혀 옷을 입고 동면에 들어간 '세종시 차양막'을 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시〉 크~~

국회의사당 세종분원을 세우기로 확정되었다는 현수막이 공공관서는 물론 길가에 엄청나게 펼려이는 것을 보고 아내가 물었다.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 세종 시민들에게는 뭐가 좋지요?”

“몰라. 그냥 그사람들한테 뭐 좋은 게 있나 보지.”

나랑 살아줘서

오늘은 28년째 되는 결혼기념일이다. 아내가 그동안 한 번도 안 가본 근사한 한정식에서 저녁을 사 달라고 한다. 평생 나 같은 사람과 살면서 밥을 차려 줬는데 그 정도 쯤이야...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 다리건 너 첫마을에 나만 모르고 세종시민은 다 아는 유명한 한정식집이 있었다. 블러그 리뷰가 300개나 달려 있었다.

좀 일찍 집을 나서 찾아갔더니 불이 꺼져있고 간판도 없다. 지난달에 문을 닫았다고 써 있다. 세상에... 코로나의 여파가 이렇게 장사 잘되는 식당도 무너뜨렸구나! 더 망설이다가는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장군면 언덕에 있는 '한소쿠리'로 갔다. 아쉬운 대로 버섯전골로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밖으로 나오니 갑자기 힘백눈이 평평 내린다. 마치 우리의 결혼 축하 깜짝쇼 같아서 환호성을 질렀다.



열권 채웠다

오늘 드디어 <겨울 묵상>편집을 마쳤다. 아내가 최종 교정을 오케이 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는 책이 나올 것 같다. 올 해는 어떻게든 책 열권을 만들리라 다짐 했는데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

2권은 500쪽이 넘고 3권은 400쪽 책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책이 쉽게 나온 것 같지만, 한 권 한 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쓰기 시작했으니 18년 걸린 책이다. 다른 책들도 최소한 1년 이상 쓴 책들이니 사실은 쉽게 나온 책들이 아니다. 오랫동안 임신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나의 소중한 자식들이다.

핸드폰,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책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책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스쳐가는 전자정보가 주는 느낌과 책이 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532회 괴화산(200m)

삼거리에서 600번 버스를 타고 반곡고 등학교에서 내려 학교 뒷산길을 따라 안산 → 괴화산 → KDI → 소담동복점 앞 정류장까지 약 5km를 1시간 30분 동안 기온이 차가워서 열 나라고 다리에서 열 불나게 걸었다.

괴화산 정상에는 처음 보는 정상석이 서 있었다. 글씨가 빤팝빤팝 한 것이 세운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정상의 돌무더기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고려시대에 정자나 산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굴되어 일단 보존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길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주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운동 산책으로 많이 올라다니는지 길바닥도 맨질맨질 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시덤불이 우거져 길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진 것이다. (2021.12.2.)

▲제533회 비학산223 (일출봉252m) 2021.12.10.

▲제534회 비학산224 (일출봉252m) 2021.12.21.

▲제535회 비학산225 (일출봉252m)

대전 우산봉 오르려고 정류장으로 가는데 내가 탈 655번 버스가 스르륵 눈앞에서 지나가버린다. 그때 국민비서 문자가 빙동 왔다.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은 7일간 힘든 일이나 운동 자제하세요.> 나 백신 주사 맞은지 3일째.

그래서 우산봉은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싸인으로 받고 발길 돌려 대신 비학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 엄청난 눈이 평평 내리기 시작한다. 제대로 눈산행 준비도 안되었었는데 우산봉 올랐으면 큰일날 뻔했다. (2021.12.30)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 소한(小寒)-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소한'이네요. 한겨울 추위가 혹독한 날입니다. 소한 무렵은 정초한파(正初寒波)라 불리는 강추위가 몰려오는 때입니다. 지금이야 난방도 잘되는 집과 오리털 점퍼, 발열내의도 있지만, 전에는 '엄동설한'을 견뎌야 했죠' 문풍지가 사납게 우는 방에서 오들오들 떠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보면 "겨울철 석 달은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며 양(陽)이 움직이지 못한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해가 뜬 뒤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권합니다.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듯 사람도 잠을 많이 자라는 뜻이죠.

② 표지사진 이야기 -나이테-



어디선가 겨울나무 나이테 하나씩 긋고 있겠지

견딘 만큼 숨 쉰 만큼 -한희철

최용우: 제가 사진 좀 빌리겠습니다.

1월에 딱 맞는 사진이군요.

한희철: 얼마든지요.

이번호 표지사진은 이렇게 해서 한희철 목사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굴참나무는 유난히 껍질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굴참나무 껍질로 지붕을 얹은 굴참나무 집이 많았었습니다.

③ 도서출판 소식

신간 〈겨울목상〉 - 218쪽 13,900원(올컬러) - 12월27일 발행!

56. 〈들꽃편지2권 쑥부쟁이꽃〉 - 504쪽 21,200원 - 11월30일 출간

55.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예동) - 326쪽 14,600원 - 11월5일 출간

54.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밤상-저녁밥2 -398쪽 17,300원 - 10월15일 출간

53. 일출봉에 햇볕이 쟁하오 207쪽(올컬러) 13,600원 - 9월17일 출간

52. 일상의 행복 207쪽(올컬러) 13,600원 - 7월8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41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살림 드러내기 -2021.12월 재정결산

2021년 12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강봉옥 고종찬 김광현 김준경 박근식 박기순 박승현 박신혜 오창근 옥치오 이인자
이재익 이진우 장기갑 장영일 전서월 정옥진 정효숙 조운학 주명혁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향성운 구글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2 안디옥교회 예사전선교회
평안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지난달에는 모두 33분이 1,941,942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볕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볕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현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짹’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볕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2.1.5일 현재 7127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57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7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 문서, 인터넷, 북방선교2, 선교사, 아동)

⑥기독교피정쉼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볕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겨울 묵상

최용우 지음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퍼플

12월 27일
새로 나온 책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

최용우 사진 묵상집
<겨울 묵상>이 나왔습니다.

- 1권 봄 묵상
- 2권 여름 묵상
- 3권 가을 묵상
- 4권 겨울 묵상

최용우 사진 글
218쪽 13900원(컬러) 퍼플

저는 마당이 있는 시골 단독 주택에 살기에 거미줄을 자주 봅니다. 거미는 쳐마 밑이나 나무 사이, 또는 창문에 걸쳐서 거미줄을 칩니다. 그들의 거미줄 짓기 신공을 보노라면 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전율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쳐놓은 거미줄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햇살의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미묘하게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를 실제로 느껴보셨는지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평범한 일상과 풍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경험하셨는지요? 저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은 곧 하나님의 현실(reality of God)입니다. 그 하나님의 현실은 “생명의 리얼리티”(reality of life)입니다.

아주 세심하면서도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나무에 관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헤르만 헷세에게서 보듯이 『헤르만 헷세의 나무들』 참조) 일상의 여러 순간에 미주친 생명의 소소한 리얼리티를 구도적인 태도로 사진과 묵상글로 묶어낸 이가 바로 최용우 님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 추천사를 대신하여 정용섭 (대구성서아카데미 원장)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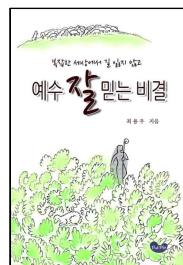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등산-생각이 맑아지고 정신이 순수해지고 영혼은 칼끝에 선 바람처럼 자유롭네. 2004년부터 17년 동안 500회 등산을 하면서 때로는 바람으로, 향기로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산행기록 31,800원 534쪽(을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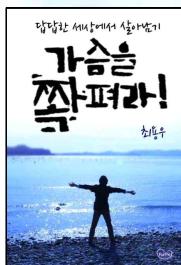
다시 벌떡 일어나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드러누워서 세상 밑바닥만 쳐다보면 온통 똥묻은 구두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장 벌떡 일어나 뛰면 역전할 수 있어요. 안 늦었습니다. 286편의 도전 글 12,400원 336쪽 퍼플



예수 잘 믿는 비결

복잡한 세상에서 길 잊지 않고-온갖 가짜들이 미혹하고,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에서 진짜를 분별하고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비결입니다. 288편의 순수복음 글 모음 12,100원 326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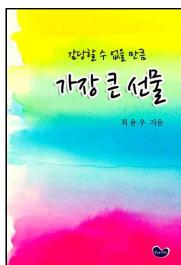
가슴을 짹 펴라!

답답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남자든 여자든 풍성한 가슴은 자부심이죠.^^ 가슴을 짹 펴면 폐기능이 풍성하게 활성화 되어 자신감과 의욕이 부풀어 오릅니다. 279편의 자신감 회복 글 11,600원 308쪽 퍼플



정정당당 잘 살자

힘없고 빡 없고 돈 없어서 억울한 '을'인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행하며 쭉끌리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286편의 정정당당 글 모음 12,400원 336쪽 퍼플



가장 큰 선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형통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288편의 형통 글 12,100원 326쪽 퍼플

✿여기에서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쉼터(파정) <http://cyw.co.kr> *햇볕같은이야기 <http://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214-21-0389-661 농협138-02-048495 하나은행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길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36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 창간)